

“연기 불만족이 성장 원동력”



“스카이크슬’의 예서는 이제 잊어주세요!”

표독스러운 기세로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당돌한 여고생. 많은 시청자가 기억하는 연기자 김혜윤(25)의 모습이다. 2019년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던 JTBC 드라마 ‘스카이크슬’의 고교생 강에서가 남긴 인상은 그만큼 강렬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요즘, 이제 ‘조이’로 더 많이 불린다. 28일 종영한 tvN ‘어사와 조이’에서 ‘이혼녀’ 캐릭터 김조이로 등장한 그는 “일부러 (독특한 캐릭터와 장르를)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새롭게 느껴졌다면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 “스카이크슬 꼬리표? 압박감 있었죠”

조선시대로 날아간 그는 어사 옥택연과 좌충우돌하며 각종 사건을 해결해갔다. 자연스럽게 로맨스를 짝 띄우며 애절한 키스신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옥)택연 오빠가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의지를 정말 많이 했죠. 추운 날, 겨우는 장면에선 오빠의 목에 핫팩이 숨겨진 부위를 노려 안고는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핫팩 찾니?’라며 놀리기 바빴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조이의 주제적인 모습에 반해 즐겁게 촬영했는데, 당찬 면모가 못되게 보일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스카이크슬’이 남긴 이미지가 워낙 강해 ‘꼬리표’가 될 것이라 우려도 있어 왔다. 2019년 MBC ‘어쩌다 발견한 하

독특한 이혼녀 캐릭터 조이에 끌려 ‘스카이크슬’ 꼬리표 지우려고 노력로 로맨스·코믹 등 다양한 장르 경험해보고 싶은게 많아... 계속해 도전

루’에 이어 청춘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톡톡히 활약한 덕분이다.

“전과는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마다 예서 캐릭터와 자주 비교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만들자는 생각에만 집중했어요. 그동안 로맨스, 코믹, 사극,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를 했어요. 뭐가 잘 맞았냐고요? 하나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다 어려웠어요.”

● “평소엔 ‘파워 집순이!’”

이름을 알린 지는 오래지 않아도 17세부터 일찌감치 연기에 뛰어 들었다. 출연작만 38편이다. 한 우물만 판 비결로 “연기에 대한 불만족”을 꼽았다.

“사실 제 연기에 대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오히려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한 작품씩 하나씩 때마다 자꾸만 부족한 점들이 보였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 또 연기했어요. 단점을 발견해 나아가려는 힘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평소에는 “평범한 20대”이다. ‘파워

연기자 김혜윤은 28일 종영한 tvN 드라마 ‘어사와 조이’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면서 “내년에는 스스로 만족하는 연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집순이’라 쉬는 날에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드라마 속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과는 또 다르다.

“요즘 유행하는 MBTI(성격유형검사)에서 INFJ형이 나왔어요. ‘예언자형’이라고 하죠. 내향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며 화합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는데 일부분은 비웃어요. 쉬는 날 침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예요. 이상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 하하하!”

올해를 꼭 채워 보낸 김혜윤은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게 많다”며 욕심을 드러냈다. “더 많이 공부해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모두,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박병은, 국립암센터에 5000만원 기부



배우 박병은(사진)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28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병은은 최근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소속사는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암 예방을 위한 연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병은은 영화 ‘더 문’과 ‘데시벨’ 개봉을 앞두고 있고, 내년 공개할 tvN 드라마 ‘이브’를 촬영 중이다.

오늘 SBS서 싸이 ‘올나잇...’ 콘서트 방송

가수 싸이가 SBS를 통해 ‘올나잇 스탠드’ 콘서트를 선보인다. 28일 SBS는 “29일 오후 9시부터 싸이의 대표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공연 실황 하이라이트를 100분간 방송한다”고 밝혔다. ‘올나잇 스탠드’는 싸이가 2003년부터 매년 열어온 콘서트로, 밤에 시작해 다음날 첫차가 운행할 때까지 공연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방송은 ‘올나잇 스탠드’ 2019년 공연의 하이라이트 모음이다.

가수 양병집 빈소 마련...30일 발인



포크 1세대 가수 양병집(양준집·사진)이 24일 별세한 가운데 유족이 28일 빈소를 마련했다. 서울 청담동성당 본당 영안실로, 29일까지 조문을 받는다. 양병집은 2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양병집은 거친 음색으로 현실을 노래한 대표적인 포크가수이다. 포크록의 대부 밥 딜런의 ‘돈트 싱크 트와이스, 잇츠 올 라이트’(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를 번안한 노래 ‘역(逆)’ 등을 남겼다. 최근 자신의 삶을 담은 자전적 소설 ‘밥 딜런을 만난 사나이’를 펴냈다. 발인은 30일 오전 7시30분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코미디빅리그’ 10주년... “개그계의 레전드 되고파”

출연자들 간담회서 사회 밝혀 내달 2일 이어 9일 ‘특집무대’

tvN 공개 개그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가 방송 10주년을 맞아 내년 1월2·9일 특집 무대를 펼친다. 지난해 KBS 2TV ‘개그콘서트’가 폐지되는 등 방송사에서 공개 개그프로그램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2011년 9월17일 문을 연 뒤 “폭

심”으로 자리를 지켜온 성과이다.

연출 총괄 박성재 PD와 최근 KBS ‘연예대상’을 수상한 문세운 등 출연 개그맨들은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빅’의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무대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코빅’에는 유세운·장동민·양제형·안영미 등 스타급 개그맨뿐 아니라 김해준·이은지 등 최근 ‘셋별’로 통하는 신인들까지 두루 나섰다.

1회부터 출연해온 이상준은 “개그맨들

이 저마다 역량을 다해 10년을 채웠다. 한 주 한 주 열심히 쉬지 말자는 생각으로 임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세운과 SBS ‘연예대상’의 최우수상을 받은 양제형은 “‘코빅’이 없었다면 수상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후배들에게 차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성재 PD 등 제작진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제작진은 공개 개그프로그램 최

초로 순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개그맨들이 새로운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 PD는 “개그맨들이 예능프로그램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돼 변화를 체감한다”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개그계의 ‘레전드’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빅’ 제작진과 양제형·황제성·홍윤화·이상준·최성민 등 출연진은 올해 초부터 10주년 특집 무대를 준비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방청객을 초대해 무대를 선보이게 되면서 뒤늦게나마 10주년 무대를 펼치게 됐다.

유지혜 기자

생활체육·경정

미래 체육 100년 선도...리더들 머리 맞댔다

정책토론회 ‘체육인이 바란다’ 열려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를 위해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의 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수 국민의힘 간사,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주관한 이 행사는 미래 체육 100년을 선도할 주요 체육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회 방역지침상 참석인원을 최소화했다. 현장에는 지방체육회 대표단, 경기단체연합회 회장단,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표단,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대표자연합, 전국직장운동경기부연합회 회장단, 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단,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단, 각 체육단체 대표단 등 체육 분야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들과 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체육 분야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 개선방안에 대해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발제했으며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명예회장이 정부스포츠조직 혁신 및 기능효율화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김택천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체육 수업시간 확대 및 전문화,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

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방체육, 종목단체 대표자가 나와 ‘체육인이 바란다’를 주제로 각 분야의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 및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행사가 차기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갖고 조만간 여야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백전노장 김종민 ‘화려한 피날레’

시즌 마지막 대회 ‘문체부장관배 그랑프리 경정’ 우승

경정 2기생인 베테랑 김종민이 2021 시즌 마지막 무대의 우승을 가져가며 화려한 피날레를 만들었다.

김종민은 29일 47회 2일차 14경주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정’ 결승에서 우승하며 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올해 그랑프리 경정은 신홍 강자로 자리잡은 조성인, 김승선과 올 시즌 깜짝 활약을 펼친 문주엽, 그랑프리 3회 우승자 배혜민, 현 경정 최강으로 불리는 심상철 등이 나섰지만 노련한 김종민을 막지 못했다.

고대했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김종민은 수요일 예선에서 배혜민에게 일격을 허용하며 2착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결승에서는 마지막 6코스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결승에서 6코스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썰기기로 내선을 장악했다. 이어 2턴에서 확실하게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집중력을 발휘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준우승은 1코스 조성인이 차지했다. 쿠리하라배에서 김종민에게 밀려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에 설욕을 노렸지만 결국 김종민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21 시즌은 ‘김종민의 해’라 해도 과언이



김종민

아닐 정도로 활약이 돋보였다. 시즌 20승으로 다승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랑프리 우승 상금을 더하면서 상금에서도 단독 선두에 올랐다. 특히 10월에는 생애 처음으로 쿠리하라배 타이틀을 차지해 경정의 모든 대상 경주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4년 울스타전 이후 인연이 닿지 않았던 시즌 마지막 대회도 우승했다.

김종민은 2003년 2기로 데뷔해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의 통령 비결로 성실함을 꼽는다.

경정은 내년에도 최강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플라이인으로 기세가 주춤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상을 지켜온 심상철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김종민, 그리고 이들 못지않은 선회와 스타트 능력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조성인 등이 경쟁하면서 경정팬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